

비대면 학습환경에서 온라인 강의를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의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학업스트레스간의 관계연구

양승애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flow, learning satisfaction,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and academic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who experienced online lectures in a non-face-to-face learning environment

Yang, Seung A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ealth Sci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비대면 학습환경에서 온라인 강의수강을 경험한 일 간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및 학업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하고 변수간의 상관관계 및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위치한 일 간호대학의 재학생 143명을 대상으로 구글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9월 25일까지 자료수집을 시행하였고, SPSS Statistics 25.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t-검정, 일원분산분석, 피어슨상관계수, linear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학업스트레스는 간호학과 지원동기($F=4.465, p=.005$)와 전공만족도($F=36.499, 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업스트레스는 학습몰입($r=-.464, p<.010$), 학업적 자기효능감($r=-.522, p<.010$), 학업성취도($r=-.379, p<.010$)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습만족도는 학업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전공만족도($\beta=.367, p<.01$), 학습몰입($\beta=-.186, p<.05$), 학업적 자기효능감($\beta=-.241, p<.05$)으로 확인되었으며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40%였다. 본 연구결과 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학업스트레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evel of learning flow, learning satisfaction,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and academic stress of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non-face-to-face online lectures, an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and the factors affecting academic stress. The data of this study was collected from 143 students at a nursing college in Seoul, through a Google online questionnaire from September 1, 2023 to September 25, 2023, and descriptive statistics, Student's t-test, analysis of variance, Pearson's Correlation, and linear multiple regression were conducted using SPSS Statistics 25.0. Following an analysis of the differ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cademic stres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Motivation for applying to department($F=4.465, p=.005$) and Major satisfaction($F=36.499, p=.000$) of the subject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academic stres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learning flow ($r=-.464, p<.010$), academic self-efficacy ($r=-.522, p<.010$), and academic achievement ($r=-.379, p<.010$), but learning satisfaction was not correlated with academic stress. Variables affecting academic stress were major satisfaction ($\beta=.367, p<.01$), learning flow ($\beta=-.186, p<.05$), and academic self-efficacy ($\beta=-.241, p<.05$), and the explanatory power for academic stress was 40%.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intervention programs for relieving academic stress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academic flow, learning satisfaction,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academic stress

본 논문은 2021년 성신여자대학교 교내학술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교신저자 : 양승애(ewha63@sungshin.ac.kr)

접수일 2023년 10월 15일 수정일 2023년 11월 20일 심사완료일 2023년 11월 24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19 팬데믹은 대학교육에도 현저한 변화를 불러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심각한 확산으로 인해 교육부는 2020년 2월에 '2020년 1학기 대학 학사 운영권고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 집합수업 대신 재택수업, 즉 원격수업 등을 운영하라는 내용이었다. 대학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체적 운영 방식을 조정하도록 허용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 대다수 대학은 개강을 연기하고,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면 수업의 일시적 연기와 철회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1]. 이에 따라 국내 대학들은 2020년 3월에 전국적으로 사상 초유의 비대면 학습환경에서 온라인 수업을 도입하였지만[2], 전례 없는 전면적인 온라인 수업 도입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국내에서 비대면 고등교육이 주로 1972년에 설립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2001년에 설립된 21개 사이버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반대학에서는 원격 교육 비중을 20% 이하로 제한해왔다[3].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비대면 학습환경에서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면서 2020년 3월에 교육부가 원격 교육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면서 대학이 대면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변경할 때 자율적으로 교과목과 학점 이수 등을 조정하여 개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3].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에 대다수의 일반대학은 원격수업에 대한 학점 제한으로 인해 원격수업에 대한 확고한 실행 의지를 갖지 못했기에 갑작스러운 교육부의 규정 완화에도 불구하고, 원격수업에 대한 경험과 인프라가 부족하여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금까지 온라인 수업 비중이 작았기 때문에 수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였으며 대부분 교수는 영상 제작에 대해 경험이 부족하거나 제작 자체를 시도해보지 않은 상태였기에, 이 모든 것을 단기간 내에 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수업의 질에 관한 문제가 드러났다[1].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과 촬영 지원을 비롯한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수업 설계부터 운영, 평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전체 교과목이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다수의 혼란과 불편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었다[4]. 예상치 못한 비대면 학습환경에서의 온라인 수업 전환은

온라인 수업에 대비한 교수자의 미흡한 준비로 수업 질 저하,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집중력 저하,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 저하와 학생과 교수자 간의 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어려움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5,6]. 이처럼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업 수행과정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불만과 학업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었다[7,8,9]. 학업스트레스는 학생들이 학업으로 인해 경험하는 긴장, 초조함, 심리적 부담 및 우울 등으로[10]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7]. 특히, 온라인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진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필요한 학습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하지 못하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학습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1]. 이로 인해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가 확대되고 학습 집중도 및 효율이 감소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12]. 온라인 비대면 학습환경에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수업 효과에 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온라인 수업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13]. 온라인 강의에서 학습자의 수업만족도는 온라인 수업에 대해 학습자가 기대하는 요구와 목적이 충족되었을 때 얻어지는 결과로 이는 지식습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14]. 학습몰입은 특정 학습활동이나 수업에 집중할 때 나타나는 최적의 심리상태로, 자신의 학습활동이나 수업에 몰두하여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여 학업성취를 이루어내는 상태를 의미한다[15]. 학업 수행과정에서 흥미를 향상시키면 대학생은 만족과 성취를 더욱 달성하게 되며, 이는 학습의 수행과정과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대학생이 학습몰입을 경험하게 되면 학업성취도가 향상되고 학습 과정에서의 성취감과 만족감을 높여주어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까지 향상된다고 보고되고 있다[16]. 대학 생활에서의 학업성취도는 학업적인 요구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대학생의 자긍심을 발전시키고 졸업 후에도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개별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의미한다[17]. 이러한 학업성취도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지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실제로 이루어내기 위해 대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실질적인 노력으로써의 학습몰입과 진로 행동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업성취도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며 실현 가능성을 상승시키게 된다[18].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학습자 스스로 필요한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19].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과제수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결국 성공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적응력이 높아[19] 학업스트레스와의 관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이론교육과 임상실습교육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는 간호대학의 대부분이 교내실습과 현장에서의 실습교육을 비대면 학습환경의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비대면 학습환경에서 온라인 강의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및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해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 대학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및 학업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여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 둘째, 대상자의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및 학업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한다.
- 셋째, 일반적 특성과 관련하여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및 학업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 넷째, 대상자의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및 학업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다섯째,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비대면 학습환경에서 온라인

강의를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의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및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에 소재한 일 대학교 간호대학 재학생중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비대면 학습환경에서 온라인 강의를 경험한 2, 3, 4학년 학생을 편의표집하였으며, 필요한 적정 표본 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중간 효과 크기 0.15, 검정력 90%, 유의수준 0.05, 예측 변수 5개로 산출한 결과[20] 연구에 필요한 적정 표본 수는 116명으로 확인되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해 총 1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자료 불충분으로 7부를 제외한 14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9월 25일까지 온라인 설문지로 실시되었다. 자료수집은 구글 문서 도구를 활용한 설문지를 작성한 후 해당 설문지의 URL 링크를 통해 진행되었다. 접속 시 첫 화면에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익명 처리되며 연구 목적에 한해 활용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는 언제든지 연구도중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설문 작성에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에게는 답례로 기프티콘을 제공하였다.

2.4 연구 도구

자료의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 특성 6문항, 학습몰입 22문항, 학습만족도 9문항, 학업적 자기효능감 10문항, 학업성취도 9문항, 학업스트레스 15문항을 포함하여 총 7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4.1 학습몰입

본 연구에서 학습몰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Seok(2007)이 개발한 학습몰입 측정표를 토대로[21] Park(2009)이 재구성한 학습몰입 검사 도구를[22] Yoon(2011)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적합하도록 수정 및

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23]. 총 22문항으로 5개의 하위요인인 학업과제 집중, 명확한 학업목표, 학업과 인식의 통합, 시간 감각의 왜곡, 과제와 능력의 조화를 포함하여 구성되었고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를 이용하여 나타내는데 높은 점수를 나타낼수록 학습몰입정도가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 Yoon(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68였고[23],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46이었다.

2.4.2 학습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Stein(1997)이 사용한 설문[24] Chung과 Lim(2000)이 번안·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25].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고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를 이용하여 나타내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2022)에서는 Cronbach's α = .92로 나타났으며[26],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919이었다.

2.4.3 학업적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Ayres(2005)가 개발하고[27] Park과 Kweon(2012)이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28].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조금 그렇지 않다(3점), 보통이다(4점), 조금 그렇다(5점), 대체로 그렇다(6점), 매우 그렇다(7점)으로 Likert 7점 척도를 이용하여 나타내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과 Kweon(2012)에서 Cronbach's α = .95이었으며[28],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8이었다.

2.4.4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는 학습자가 특정 수업의 결과로 정보나 기술을 획득하는 정도를 측정한 것을 말한다[29]. 본 연구에서 학업성취도는 주관적 학업성취도로 측정하였는데 Rovai등(2009)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지적, 정의적 및 심동적 영역에서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가보고 형식의 인지학습척도(Cognitive, Affective and Psychomotor Perceived Learning Scale)를[30] Cha(2017)가 대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31].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를 이용하여 나타내는데 이중 부정적인 문항(2,7)은 역 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자가 인지하는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ha(2017)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 .84이었으며[31],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29이었다.

2.4.5 학업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Schaufeli 등(2002)이 개발한[32] MBI-SS (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척도를 Shin(2012)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33]. 총 15문항으로 냉소주의 4문항, 정서소진 5문항, 효능감 감소 6문항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대체로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 4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이중 긍정적인 문항(10~15)은 역 환산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게 나타날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 Shin(2012)에서는 Cronbach's α 는 .87이었고[33]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08이었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데이터는 SPSS Statistics 25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아래와 같다.

- 가.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나. 대상자의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학업스트레스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학업스트레스의 차이는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으로 산출하고,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를 시행하였다.
- 라. 대상자의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학업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마.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2.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 대학교 간호대학생을 편의추출하여 수행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간호학과 여학생이고, 나이는 평균 21.55세로 '20세 이하' 40명(28.0%), '21세' 40명(28.0%), '22세' 32명(22.4%), '23세 이상' 31명(21.7%)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자의 학년은 '2학년' 54명(37.8%)이었으며 '3학년'과 '4학년'이 각각 45명(31.5%), 44명(30.8%)이었고 학업성적의 경우 '높음'이라고 응답한 경우 49명(34.3%), '중간' 68명(47.6%), '낮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6명(18.2%)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에 지원한 동기의 경우 '본인의 적성과 흥미'라고 응답한 경우가 73명(51.0%)으로 가장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취업률이 높아서' 51명(35.7%)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만족'이 100명(69.9%)으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보통' 36명(25.2%), '불만족' 7명(4.9%)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participant (N=14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yrs)	≤20	40(28.0)
	21	40(28.0)
	22	32(22.4)
	≥23	31(21.7)
	M±SD	21.55±1.79
Grade	sophomore	54(37.8)
	junior	45(31.5)
	senior	44(30.8)
Academic performance	High	49(34.3)
	Medium	68(47.6)
	Low	26(18.2)
Motivation for applying to department	Aptitude & Interest	73(51.0)
	Solicitation from acquaintances	9(6.3)
	According to grades	10(7.0)
	Employment rate	51(35.7)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100(69.9)
	Neutral	36(25.2)
	Not satisfied	7(4.9)

3.2 대상자의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학업스트레스 정도

연구대상자의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학업스트레스 정도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Learning flow, Learning satisfaction,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Academic stress of the participant (N=143)

Variables	M±SD	Min	Max	Range
Learning flow	3.39±0.43	2.45	4.32	1-5
Learning satisfaction	3.48±0.83	1.44	5.00	1-5
Academic self-efficacy	5.73±0.77	2.60	7.00	1-7
Academic achievement	3.02±0.37	1.89	3.89	1-5
Academic Stress	1.80±0.30	1.13	2.60	1-4

학습몰입은 5점 만점에 평균 3.39±0.43점, 학습만족도는 평균 3.48±0.83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7점 만점에 평균 5.73±0.77점, 학업성취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02±0.37점, 학업스트레스는 4점 만점에 평균 1.80±0.30점으로 분석되었다.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학업스트레스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습몰입은 학업성적(F=10.952, p=. 000)과 간호학과 지원동기(F=3.154, p=. 027), 전공만족도(F=16.890, p=. 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학업성적과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학업성적이 '높은' 경우 '보통'이나 '낮은' 경우보다 학습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의 경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 '보통' 혹은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학습몰입 정도가 높게 제시되었다. 학습만족도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F=5.668, p=. 004) 사후분석을 시행한 결과 2학년, 3학년이 각각 4학년보다 학습만족도가 높게 분석되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경우 간호학과 지원동기(F=2.919, p=. 036), 전공만족도에 따라(F=27.277, p=. 000)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사후분석을 시행한 결과 전공만족도에 따라 '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 '보통'이나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와 학업스트레스 스트레스 차이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업성취도는 학업성적(F=7.048, p=. 001), 간호학과 지원동기(F=3.217, p=. 025), 전공만족도(F=12.073, p=. 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분석을 시행한 결과 학업성적이 '높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보통' 또는 '낮다'라고

<Table 3> Difference of Learning flow, Learning satisfaction,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 Academic stress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3)

Characteristics	Categories	Learning flow			Learning satisfaction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Academic stress		
		M±SD	t/F(p)	sche-ff's	M±SD	t/F(p)	sche-ff's	M±SD	t/F(p)	sche-ff's	M±SD	t/F(p)	sche-ff's	M±SD	t/F(p)	sche-ff's
Age(yrs)	≤20	3.28±.46	1.558 (.202)	-	3.44±.86	2.372 (.073)	-	5.61±.86	2.404 (.070)	-	2.92±.43	1.342 (.263)	-	1.80±.31	.319 (.811)	-
	21	3.48±.43			3.73±.80			6.00±.64			3.08±.31			1.78±.30		
	22	3.37±.46			3.21±.80			5.62±.72			3.05±.35			1.85±.30		
	≥23	3.42±.35			3.49±.80			5.65±.81			3.04±.37			1.80±.28		
Grade	sophomore ^a	3.29±.46	2.318 (.102)	-	3.58±.89	5.668* (.004)	a) c b) c	5.70±.80	.109 (.897)	-	2.96±.43	1.303 (.275)	-	1.78±.30	.663 (.517)	-
	junior ^b	3.46±.39			3.68±.79			5.77±.78			3.04±.31			1.85±.28		
	senior ^c	3.43±.43			3.14±.70			5.73±.74			3.07±.35			1.79±.31		
Academic performance	High ^a	3.60±.44	10.952** (.000)	a) b, c	3.38±.66	.691 (.503)	-	5.85±.68	2.695 (.071)	-	3.16±.37	7.048** (.001)	a) b, c	1.73±.27	2.431 (.092)	-
	Medium ^b	3.32±.38			3.56±.95			5.76±.73			2.98±.33			1.84±.32		
	Low ^c	3.18±.40			3.44±.79			5.43±.97			2.85±.38			1.84±.25		
Motivation for applying to department	Aptitude & Interest	3.49±.40	3.154* (.027)	-	3.49±.78	1.935 (.127)	-	5.90±.72	2.919* (.036)	-	3.10±.33	3.217* (.025)	a) d	1.72±.22	4.465* (.005)	a < d
	Solicitation from acquaintances	3.33±.53			3.81±.85			5.78±.72			3.06±.33			1.79±.23		
	According to grades	3.24±.36			2.94±.87			5.43±.51			3.00±.27			1.93±.47		
	Employment rate	3.28±.45			3.51±.87			5.54±.84			2.90±.42			1.90±.33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a	3.51±.39	16.890** (.000)	a) b, c	3.45±.80	1.846 (.162)	-	5.97±.58	27.277** (.000)	a) b) c	3.10±.34	12.073** (.000)	a) b, c	1.71±.24	36.499** (.000)	a) b) c
	Neutral ^b	3.15±.40			3.45±.86			5.30±.77			2.87±.33			1.96±.26		
	Not satisfied ^c	2.88±.29			4.06±1.08			4.47±.1.01			2.59±.43			2.39±.22		

* $p < 0.05$, ** $p < 0.01$

응답한 대상자보다 학업성취도가 높게 제시되었고 간호학과 지원동기가 '본인의 적성과 흥미'라고 응답한 경우 '취업률이 높아서'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만족도 수준을 '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 '보통', 혹은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는 간호학과 지원동기($F=4.465$, $p=.005$)와 전공 만족도($F=36.499$, $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사후분석을 시행한 결과 간호학과 지원동기가 '본인의 적성과 흥미'라고 응답한 경우 '취업률이 높아서'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학업스트레스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만족도 수준을 '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 '보통', 혹은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학업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학업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학업스트레스는 학습몰입($r=-.464$, $p<.010$), 학업적 자기효능감($r=-.522$, $p<.010$), 학업성취도($r=-.379$, $p<.010$) 간에 유의미한 부정(-)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습만족도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s among Learning flow, Learning satisfaction,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 Academic stress (N=143)

Variable	Learning flow	Learning satisfaction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Learning satisfaction	.063 (.457)	1		
Academic self-efficacy	.578** (.000)	.071 (.398)	1	
Academic achievement	.680** (.000)	-.037 (.661)	.627** (.000)	1
Academic stress	-.464** (.000)	.158 (.059)	-.522** (.000)	-.379** (.000)

* $p < 0.05$, ** $p < 0.01$

3.5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중 차이를 나타낸 간호학과 지원동기와 전공만족도 그리고 학업스트레스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제시한 학습몰입,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를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 1.890으로 2에 근접하며 0 또는 4와 가깝지 않아 잔차의 독립성을 충족시켰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1.184~2.219로 기준치 10 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에 비대면 학습환경에서 온라인 강의를 경험한 일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beta=.367, p<.01$), 학습몰입($\beta=-.186, p<.05$), 학업적 자기효능감($\beta=-.241, p<.05$)으로 확인되었으며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40%였다 <Table 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stress (N=143)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2.346	.240		9.755	.000
Motivation for applying to department	.013	.015	.062	.879	.381
Major satisfaction	.190	.042	.367	4.494	.000
Learning flow	-.127	.064	-.186	-1.987	.049
Academic self-efficacy	.093	.036	-.241	-2.600	.010
Academic achievement	.044	.078	.055	.570	.569
R ² =.421 Adjusted R ² =.400 F=19.901 p<.001 VIF=1.184~2.219 Durbin-Watson=1.890					

4. 논의

본 연구는 일 간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및 학업스트레스의 정도와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학습몰입 점수는 5점 만점으로 산출 시 평균 3.39(±2.45)점으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Kim과

Lee(2020)의 3.27점보다 다소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몰입은 학업성적과 간호학과 지원동기 및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34,38]에서 보고한 결과와 일부 일치하였다. 대학생이 학습몰입을 경험하게 되면 학업성취도가 향상되고 학습 과정에서의 성취감과 만족감을 높여 주어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까지 향상된다고 보고한 결과[16]에 근거하여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학습환경 조성과 수업전략을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몰입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학습만족도는 5점 만점에 3.48(±0.83)점이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Kim(2022)의 3.13점보다 다소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26].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만족도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학년과 3학년이 각각 4학년보다 학습만족도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26]에서 제시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4학년 학생들의 경우 취업과 진로 그리고 국가시험에 대한 염려와 부담감으로 학습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7점 만점에 평균 5.73(±0.77)점으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과Kweon(2012)의 5.42점보다 다소 높은 결과를 나타냈지만[28], 선행연구[35]에서는 5.67(±0.80)점을 보고하여 본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특성 중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전공에 '만족'한 경우 '보통' 혹은 '불만족'으로 응답한 경우보다 높은 점수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Im(2021)의 결과와 일부 일치하여[35] 본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학업성취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02(±0.37)점으로 나타나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4]의 3.44점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는 학업성적, 간호학과 지원동기 및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34]의 결과와 일부 일치하였다. 학업성취도의 경우 전공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스트레스는 4점 만점에 평균 1.80(±0.30)점으로 나타나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6]의 2.34점, Kim(2022)의 2.21점보다 [26]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팬데

믹이 지속하는 기간에 비대면 학습환경에서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면서 각 대학의 체계적인 온라인 수업을 위한 서버와 사이트 접속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원활한 온라인 수업을 위한 적절한 교수전략과 수업방식의 도입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학업스트레스 평균점수보다 낮게 보고되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는 일반적 특성 중 간호학과 지원동기와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Kim(2022)과 Kum(2018) 및 Kim(2018)의 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26,36,38]. 이러한 결과는 '취업률이 높아서' 지원한 경우 자발적 동기에 의해 간호학과를 선택한 학생들보다 간호학 공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중도 포기할 수 있으므로 [37] 학생들이 학과를 지원할 때 신중히 선택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전공만족도가 불만족할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게 나온 것은 간호대학생들은 이론 수업의 학업량이 많고 임상 실습까지 병행해야 하는 학과의 과중한 교육과정 속에서 전공과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학습 의욕이 저하되어 학업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26].

본연구결과에서 학업스트레스는 학습몰입,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와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36]와 일부 일치된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학습에 몰입함으로써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이로 인해 전공에 만족하게 되어 학업스트레스가 낮아지게 되는 부적 상관관계를 제시한 Kim(2018)에 의해 지지가 되었다 [38]. 간호대학생들이 학업에 있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학업에 임하게 하도록 선행연구 [3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습동기 향상 프로그램을 간호대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자신감을 향상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학업성취도의 경우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의 경우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불안이 더 크므로 중도 포기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과 차원에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상담과 세심한 감독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전공만족도, 학습몰입,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확인되었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타 전공 학생과 비교해 엄격한 교육과정, 과중한 학습량, 이론과 임상 실습의 병행, 간호사 국가시험에 대한 심리적 중압감으로 일반 대학생들보다 높은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40]. 그러므로 학업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중재하고 학생들의 학습몰입

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교수법과 전략을 계획하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38]. 또한, 학습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학습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수업 설계와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의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및 학업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중재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및 학업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여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몰입은 평균 3.39 ± 0.43 점, 학습만족도는 평균 3.48 ± 0.83 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평균 5.73 ± 0.77 점, 학업성취도는 평균 3.02 ± 0.37 점, 학업스트레스는 평균 1.80 ± 0.30 점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및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차이 분석 결과 학업스트레스는 간호학과 지원동기($F=4.465$, $p=.005$)와 전공 만족도($F=36.499$, $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사후분석을 시행한 결과 간호학과 지원동기가 '본인의 적성과 흥미'라고 응답한 경우 '취업률이 높아서'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학업스트레스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만족도 수준을 '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 '보통', 혹은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학습몰입'은 학업성적($F=10.952$, $p=.000$)과 간호학과 지원동기($F=3.154$, $p=.027$), 전공만족도($F=16.890$, $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학업성적과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학업성적이 '높은' 경우 '보통'이나 '낮은' 경우보다 학습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의 경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 '보통' 혹은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학

습몰입 정도가 높게 제시되었다. 학습만족도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F=5.668$, $p=.004$) 사후분석을 시행한 결과 2학년, 3학년이 각각 4학년보다 학습만족도가 높게 분석되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경우 간호학과 지원동기($F=2.919$, $p=.036$), 전공만족도에 따라($F=27.277$, $p=.000$)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사후분석을 시행한 결과 전공만족도 수준을 '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 '보통'이나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는 학업성적($F=7.048$, $p=.001$), 간호학과 지원동기($F=3.217$, $p=.025$), 전공만족도($F=12.073$, $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분석을 시행한 결과 학업성적이 '높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보통' 또는 '낮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학업성취도가 높게 제시되었고, 간호학과 지원동기가 '본인의 적성과 흥미'라고 응답한 경우 '취업률이 높아서'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만족도 수준을 '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 '보통', 혹은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업스트레스는 학습몰입($r=-.464$, $p<.010$), 학업적 자기효능감($r=-.522$, $p<.010$), 학업성취도($r=-.379$, $p<.010$) 간에 유의미한 부정(-)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습만족도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비대면 학습환경에서 온라인 강의를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beta=.367$, $p<.01$), 학습몰입($\beta=-.186$, $p<.05$), 학업적 자기효능감($\beta=-.241$, $p<.05$)으로 확인되었으며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40%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개인 특성을 고려한 학업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 간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추후 지역 범위와 대상자 규모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각 대학의 온라인 수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인프라 및 교수자 수업역량에 따른 조사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추후 비교·분석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2021년 성신여자대학교 교내학술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REFERENCES

- [1] S.J. Kim, "Satisfaction with Online Classes Due to COVID-19 Pandemic",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1, No.7, pp.118-127, 2021.
- [2] D. J. Lee & M. S. Kim.,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n the practices of online learning in the COVID-19 situation and future directions", *Multimedia- Assisted Language Learning*, Vol.23, No.3, pp.359-377, 2020.
- [3] S. H. Jang, "The era of untact education and diagnosis of online education in university", *Ministry of Education(Online)*, 2020 <https://www.moe.go.kr>
- [4] H. S. Lee. (2020).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professors and learners on the remote learning of university education -Focused on the cases of M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n School Mathematics Society*, Vol.23, No.3, pp.377-395., 2020.
- [5] S.Y. Kim & N.M. Shin, "A study on online learner's other behaviors' and flow: comparing adolescents with adult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Vol.25, No2, pp.273-298., 2019.
- [6] Y.M. Kim. "Correlation between Psychosocial Well-being, Resilience, and Self-directed Learning of Freshman Nursing Students in Non-face-to-face Lectur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ulture and Convergence*, Vol.42, No12, pp.295-318., 2020.
- [7] K.B. Min, M.H. Shin, T.H. Yu, & S.H. Kwak, "Strategies for Revitalizing E-Learning Through Investigating the Characteristics of E-Learning and the Needs of Distance Learners in the Domestic Universities in Korea",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1, pp.30-39, 2014.
- [8] S.J. Kim, "A Study on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in Blended Learning",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0, No.7, pp.411-419, 2019.
- [9] S.H. Lee, "Factors Contributing to Learners' Academic Motivation and Concentra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1, No.2, pp.731-743, 2020.No.2, pp.731-743, 2020.
- [10] B.G. Bak & S.M.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cademic Stress Scal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6, No.2, pp.563-585, 2012.
- [11] Y.R. Lee, S.H. Kim, & M.S. Chu, "Stress, Stress Coping, and School Adaptation according to

-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Personality Type in Freshme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9 No.2, pp.172-182, 2013.
- [12] Y.S. Lee & D.K. Shin, “An Investig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Online Classes in the Untact Era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Vol.23 No.4, pp.39-57, 2020.
- [13] M.E. Kim, M.J. Kim, Y.I. Oh, & S.Y. Jung, “The Effect of Online Substitution Class Caused by Coronavirus (COVID-19) on the Learning motivation, Instructor-learner Interaction, and Class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pp.519-541, 2020.
- [14] S.H. Kwon & H.S. Ryu, In COVID-19, “a study on the effects of professor and learner interaction, self-directed learning, and learning participation on learning satisfaction in untact lectur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11, pp.87-97, 2021.
- [15] J.H. Lee,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o learn, metacogni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flow, and school achievement.”, Doctoral Dissert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2010.
- [16] S. J. Lee, “The effect of flow on learning and self-efficacy on college adap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5, no. 2, pp. 235-253. 2011.
- [17] S. J. Han, & H. W. Kim, “The Relationship of the Subjective Happiness, Ego-resili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 no. 4, pp. 461-467, 2018.
- [18] H. J. Park, “The Relationship of Self-regulated Learning and Learning Flow i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Medical Student”,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0, no. 4, pp. 917-929, 2019.
- [19]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 84, no. 2, pp.191-215, 1977.
- [20] H.C. Kang, K.P. Yeon & S.T. Han, “A Review on the Use of Effect Size in Nursing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5, no.5, pp.641-64, 2015.
- [21] I.B. Seok, “The Structure of Learning Flow: Scale, Character, Condition, Involvement”,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2007.
- [22] H.G. Park,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the Learning Flow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y Motivation Factors and Self-Directed Learning”,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2009.
- [23] J.N. Yoon, “An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by major upon followership and learning flow”,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Yongin, 2011
- [24] J.J. Stein, “Asynchronous computer conferencing as a supplement to classroom instruction in higher education: The impact of selected learner characteristics on user satisfaction and the amount of interaction”, Doctoral Dissertation, Wayne State University, Detroit, Michigan, 1997.
- [25] J.S. Chung & K.Y. Lim, “Effect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the Learner Participation,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in the Web-Based Online Discussio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16, No.2, pp.107-135, 2000.
- [26] I.G. Kim, “Nursing Educ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cademic Stress, Depression, Ego-resilience and Learning Satisfaction”,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gju, 2022..
- [27] H.W. Ayres, “Factors related to motivation to learn and motivation to transfer learning in a nursing population”, Doctoral Dissertation,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Raleigh, North Carolina. 2005.
- [28] S.Y. Park & Y.R. Kweon, “The Effect of Using Standardized Patients in Psychiatric Nursing Practical Training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21, No.1, pp.79-88, 2012.
- [29] D. Ary, L.C. Jacobs, & A. Razavieh, “Introduction to research in education(6th ed.)”, Belmont, CA:Wadsworth Thompson Learning, 2002.
- [30] A.P. Rovai, M.J. Wighting, J.D. Baker, & L.D. Grooms,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perceived cognitive, affective, and psychomotor learning in traditional and virtual classroom higher education settings”, *The Internet and Higher Education*, Vol.12, No.1, pp.7-13, 2009.
- [31] JA. Cha, “Effect of Flipped Learning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knowledge achievement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Application of the Methodological Triangulation”, Doctoral Dissertation, Chosun University, gwangju, 2017.
- [32] W.B. Schaufeli, I.M. Martinez, A.M. Pinto, M. Salanova, & A.B. Bakker,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33, No.5, pp.464-481, 2002.
- [33] D.W. Shin, “Effects of the Perceptions of Parents’ Expectations for the Future Careers of Children on Academic and Employment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2012.
- [34] J.G. Lee, W.J. Kim, & J.K.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commi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who gave

- non-face-to-face online lectur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2 No.11, pp.412-419, 2020.
- [35] E.J. Im, “The Effects of Grit,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Honam University, Gwangju, 2022..
- [36] J.H. Kum, “Effect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and Quality of Life on Academic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8 No.10, pp.325-338, 2018,
- [37] S. H. Shin, “Influence from the academic stress by achievement pressure of their parents and adjustment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c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11, pp.6756-6766, 2014.
- [38] Y.S. Kim, “Academic stress, Daytime sleepiness, Depression and Learning flow in Nursing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5, pp. 867-883, 2018.
- [39] S. H. Lee, “Effects of Learning motive enhancing program on academic self efficacy, learning habit, and self esteem in underachieve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2, No.1, pp.5-12, 2006.
- [40] M. H. Jeong, M. A. Sh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2, No.2, pp.170-177, 2006.

양 승 애(Seung-Ae Yang)

[중신회원]



- 198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이학사)
- 199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석사)
- 2002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1985년 2월 ~ 2004년 3월 : 삼성제일병원
- 2004년 4월 ~ 2007년 1월 :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조교수
- 2007년 2월 ~ 현재 :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시뮬레이션 교육